연간 예산 2500억 투입 광주 어린이집 감사 결과 5개 구청 공개 거부 논란

"어린이집 이익 해칠 우려 있다"
실명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처분
시민단체 "공개 위한 소송 제기할 것"

광주 5개 자치구가 '최근 3년간 어린이집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해달라'는 광주 시민단체 요구를 거부해 논란이다.

'비리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접근을 차단함으로써 학부모의 어린이집 선택권을 가로 막는다는 점에서다. 유치원과 함께 유아 보육·교육 기관의 한 축인 어린이집 역시 시민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감사 결과 공개대상이라는 것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시민모임)은 6일 광주 동·서·남·북·광산구를 대상으로 2015~2018년 10월 현재까지 관내 어린이집 감사 결과 보고서를 실명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했으나 5개 자치구 모두 비공개 처분했다고 밝혔다.

5개 자치구는 비공개 처분을 내린 이유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비공개 대상 정보) 1항 제 7호에서 정한 '어린이집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감사결과를 공개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게 비공개 이유라는 것이다.

시민모임은 자치구의 이같은 결정이 국민 알권리를 막는 비상식적 처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우선 막대한 시민 예산이 투입되는 어린이집 감사결과 또한 유치원, 초중고와 마찬가지로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마땅히 공개돼야 한다는 게 시민모임의 주장이다.

광주의 경우 올 9월 말 기준, 어린이집 1205곳(국공립 33곳)이 운영 중이며 연 평균 어린이집 지원 예산 규모도 2500억원 수준이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유치원 감사결과에서 보듯, 상당수 유치원은 교비로 유흥을 즐기고 개인 선물을 사는가 하면 출퇴근이 분명치 않은 원장 및 설립자 가족에게 급여를 아낌 없이 준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불러왔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유치원 감사 강화 및 감사결과 실명 공표, 초중고 감사결과 실명 공개였는데, 광주 5개 자치구는 어린이집 감사결과 공개 요구를 한 목소리로 거부한 것이다.

시민모임은 광주 5개 자치구의 어린이집 감사 결과 공개 거부 결정이 학부모의 어린이집 선택권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부당하다는 논리도 폈다.

각 구청이 제대로 된 감사(지도·감독)를 벌였다면 그 결과 보고서에 어린이집 운영 부조리, 위생불량, 보조금 유용 등 갖가지 일탈 사례가 담겼을 것이고 그 사항이 공개된다면 학부모들이 '비리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낼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데, 구청의 정보공개 거부로 학부모 선택권이 박탈된다는 설명이다. 광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올 9월 기준, 4만3410명으로 유치원(공사립 314곳) 원생 2만4600명을 압도한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국민 알권리, 학부모 선택권 등 국민 권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구청에게 주어진 어린이집 감사 권한은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며 "구청의 입장변화가 없다면, 어린이집 감사 결과를 비공개 결정한 구청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죽산보 인근에서 물 밖으로 드러난 민물조개.

◀ 6일 죽산교 인근 영산강변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 직원들이 모래톱에서 민물조개를 채취해 강 속으로 옮기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제공〉

"죽산보 수문 개방후 드러난 영산강 민물조개를 살려라"

영산강환경청 등 직원 295명 투입
폐사 막기 물속 옮기기 구조작전
조개 11만·고둥 3만여마리 살려

6일 오전 나주시 왕곡면 죽산교 인근 영산강변에서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직원 10여명이 연신 모래톱에서 조개를 채취해 물 속으로 옮기고 있었다.

직원들이 모래톱을 손으로 긁어내자 어른 손바닥 크기만한 민물조개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직원들은 모래톱과 10여m 떨어진 강을 수차례 왕복하며 포대에 넣은 조개를 강으로 다시 옮겨넣느라 여념이 없었다.

민정용 보 관리상황팀장은 "죽산보를 완전개방한 이후 물 속에 있던 모래톱이 물 밖으로 드러남에 따라 조개들을 물 속으로 옮겨주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죽산보~승촌보 구간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영산강물환경연구소, 영산강홍수통제소, 한국환경공단 직원이 모래톱 속 조개를 물속으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죽산보 수문이 완전 개방된 지난달 31일부터 이어진 이 작업은 지난 5일까지 인원 295명을 투입, 조개 11만254마리와 고둥류 3만5570마리를 옮겼다.

환경부는 보 처리방안 자료 확보를 위해 개방 폭과 모니터링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6월 절반만 열었던 죽산보 수문 4개를 내년 3월까지 모두 개방하기로 했다.

1.5m로 유지됐던 최저수위는 1.35m까지 낮아졌고, 보 상류 구간에서는 모래톱과 함께 지름 5~10㎝ 크기의 말조개·펄조개·칼조개 등 민물조개와 고동 등이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영산강환경청은 보 개방에 맞춰 작업인원을 즉시 투입, 9일까지 조개 이전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며, 수문 개방 효과 등도 살펴볼 방침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 사립유치원 172곳 중 17곳만 '처음학교로' 참여

〈정부 유치원 입학 시스템〉

시교육청 등록기간 연장 등 대책

광주 사립유치원 172곳 가운데 단 17곳 만이 유치원 온라인 입학시스템인 '처음학교로'(www.go-firstschool.go.kr)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학교로는 정부가 학부모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로 이 곳에서는 참여 유치원별 원생 모집기간 안내, 온라인 원서 접수, 합격자 발표 안내까지 이뤄진다.

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유치원 온라인 입학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서는 현재 사회적 배려 유아를 대상으로 한 2019학년도 우선모집 지원자 접수가 진행 중이다.

우선모집 전형에 참여하는 광주 사립유치원은 전체 172곳 가운데 17곳에 불과하다.

사립유치원 다수는 정부가 운영하는 유치원 입학시스템을 통해 원생을 선발하기보다 기존 해오던 것처럼 유치원 개별적으로 원생들을 모집하고 싶어 참여를 기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학부모 편의를 위해서는 다수의 사립유치원이 참여해야한다는 방침 아래 2가지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2019학년도 유치원 원생 일반모집이 오는 21일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해 처음학교로 참여 유치원 추가 등록 기간을 7일부터 15일로 연장한다. 처음학교로 참여 거부 유치원의 경우 재정 지원 규모를 줄이거나 우선 감사 대상 유치원 명단에 올리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처음학교로 참여 희망 의사를 밝힌 광주지역 사립유치원은 총 86개원이지만 준비가 부족해 17곳만 우선모집에 참여했다"며 "일반모집 기간에는 사립유치원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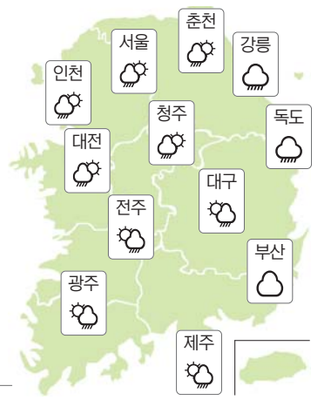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06:59	달뜸	06:09
해짐	17:33	달짐	17:37

입동(立冬)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다.

광 주	차차흐려져 비	11/16	보 성	차차흐려져 비	8/16
목 포	차차흐려져 비	12/16	순 천	차차흐려져 비	12/17
여 수	차차흐려져 비	13/16	영 광	차차흐려져 비	10/16
나 주	차차흐려져 비	10/16	진 도	차차흐려져 비	11/16
완 도	차차흐려져 비	12/16	전 주	차차흐려져 비	11/15
구 례	차차흐려져 비	9/16	군 산	차차흐려져 비	10/14
강 진	차차흐려져 비	11/17	남 원	차차흐려져 비	9/15
해 남	차차흐려져 비	9/15	흑산도	차차흐려져 비	13/16
장 성	차차흐려져 비	10/16		차차흐려져 비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0	북동~동	0.5~1.0
	먼바다	북동~동	0.5~1.5	북동~동	0.5~1.5
남해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0	북동~동	0.5~1.0
	먼바다(동)	북동~동	0.5~1.5	북동~동	0.5~1.5
	먼바다(서)	북동~동	1.0~1.5	동~남동	1.0~2.0

◇ 생활지수

뇌졸중	보통
감기	보통
미세먼지	나쁨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6:51	01:34
	19:17	14:04
여수	02:19	08:50
	14:48	14:48

◇ 주간 날씨

8(목)	9(금)	10(토)	11(일)	12(월)	13(화)	14(수)
12/17	11/16	8/19	8/17	7/17	6/16	6/16